

이달의초점

위기 취약 청년의 현황과 정책 과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김성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김지선|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함선유|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

|이상정|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

Unwed Adolescent Mothers' Education,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and Policy Needs

변수정 한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참여와 자립 준비 및 경제활동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만 15~24세 청소년 미혼모 25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참여 청소년 미혼모 중 현재 학업을 지속 중인 경우는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학업을 지속하는 10대 집단은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 중인 비율이 과반이었다. 청소년 미혼모는 환경상 학업 지속이 어렵지만,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정규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출산 전후의 휴학 기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청소년 미혼모가 경제활동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육아 때문이었다. 궁극적으로 자립을 위해 학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양육을 병행하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와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학업을 계속 이어 가거나 자립 훈련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미혼모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학업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도록 학업과 관련한 적극 지원은 물론이고 양육자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과 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들어가며

청소년 시기에는 주로 학업이나 취업 및 자립 준비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두의 청소년 시기가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도 있다. 정부 정책 대상인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만 24세 이하)에 따라 2021년 청소년이 낳은 출생아 수를 보

면 만 15~19세는 492명, 만 20~24세는 7599명으로 총 8091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출산 감소 경향 속에서 청소년의 출산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 15~24세가 출산한 아동 수가 2020년에는 1만 519명, 2019년에는 1만 2399명, 2018년에는 1만 4605명 수준이었다(KOSIS, 각 연도). 물론 청소년 출산이 모두 양육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접 양육을 선택하게 되면 주변의 도움이나 국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홀로 아이를 양육하게 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라면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로 한정하여 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청소년 미혼모는 청소년이라는 시기의 특수성과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라는 환경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교육뿐 아니라 양육 또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경제활동 및 훈련 등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이른 시기에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청소년기에 기대되는 발달 과업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으로서의 과업 이행이나 성장, 그리고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는 집중적인 육아 활동을 요구하는 영아기의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 본인의 학업이나 취업 및 자립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향후 미혼모 가족의 자립과 아동의 성장·발달을 생각한다면 청소년 양육자가 학력을 갖추어 놓거나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등 취업 및 자립을 위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도 2022년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여성가족부, 2022. 6. 28.)하는 등 홀로 양육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참여와 자립 준비 및 경제활동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미혼모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 미혼모는 연령 특성상 자립을 이룬 경우가 드물 수밖에 없어서 자립에 필요한 학업이나 교육 및 훈련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청소년 미혼모가 아이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의 경험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자립 준비, 경제활동 등 관련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현재는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의 모집단 파악이 어렵고 관련 정보나 통계가 부족하여 이들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욕구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이 글에서는 미혼모 대상 조사 자료¹⁾에서 청소년 미혼모를 추출해 학업, 직업훈련, 경제상

황 및 경제활동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해당 조사는 2019년 만 15세 이상 전국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혼모 모집단의 수가 분명하지 않아 표본 추출에는 한계가 있어 미혼모 관련 기관 및 시설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알리고 미혼모 개인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1247명이 참여하였다. 미혼모 대상 조사 중 대규모 조사로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 1247명의 평균 연령은 31.1세였고, 약 90%가 자녀 1명을 양육 중이며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 연령인 경우가 80% 정도로 나타났다(변수정, 김유경, 최인선, 김지연, 최수정, 김희주, 2019).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대상에 해당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에 따라 조사 자료 중 만 15~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미혼모 252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조사는 청소년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 수가 250명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청소년 미혼모 조사는 대상 확보나 조사 진행이 쉽지 않은 점과 활용 가능한 2차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250여 명의 청소년 미혼모 사례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법적 기준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의 연령은 만 15~24세이지만, 이 글에서는 10대와 20세 이상 청소년 미

혼모의 상황이나 욕구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만 15~19세와 만 20~24세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집단 구분 시 성인의 기준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만 19~24세를 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10대 집단의 사례 수가 매우 적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만 15~24세를 두 집단으로 구분할 때 5세 구간으로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 만 15~19세 집단과 만 20~24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실태에서는 현재 최종 학력, 현재 학업 지속 여부, 학업을 지속한다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과 가장 어려운 점, 자립에 필요한 학력과 선호하는 교육 유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 미혼모는 연령상 현재 학력이 최종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력 구분에서 현재 재학이나 중퇴 등 졸업 여부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 미혼모의 현재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만 20~24세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절반이고, 대학교 재학 및 중퇴가 30.4%로 그다음이었다. 만 15~19세의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중퇴인 비율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 집단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1)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로 자세한 조사 관련 사항은 해당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모집단의 특성상 표본 추출을 통한 조사가 아니므로 가중치 산출 및 적용은 불가하다.

[표 1] 학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재학 및 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및 중퇴	대학 졸업 이상	사례 수
전체	6.4	16.6	44.4	26.2	6.4	(252)
만 15~19세	12.5	58.2	20.8	8.3	-	(48)
만 20~24세	5.0	6.9	50.0	30.4	7.9	(204)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만 15~19세 집단의 최종 학력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집단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은 해당 없는 경우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령을 두 집단으로 구분해 경향성을 파악했지만,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마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급에 해당하는 연령별로 매칭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연령별로 구분해도 경향이 드러나는 규모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미혼모 252명 중 현재 학업 중인 비율은 23.4%였다. 76.6%는 학교에 재

학하지 않거나 검정고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대의 경우는 연령 특성상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과반으로 나타났고, 만 20~24세의 경우는 약 15%만 학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업 중인 미혼모에게 학업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자신의 강한 의지'라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만 20~24세의 경우보다 학업을 수행하던 때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경우가 더 많아 자신의 의지로 학

[표 2] 현재 학업 지속 여부

(단위: %, 명)

구분	학업 중				학업 중 아님 학교 미재학 및 검정고시 안 함	사례 수
	학교 다님			검정고시 준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0.4	7.1	10.3	5.6	76.6	(252)
만 15~19세	2.1	31.3	6.3	16.7	43.8	(48)
만 20~24세	0.0	1.5	11.3	2.9	84.3	(204)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업을 이어 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업을 지속하는 미혼모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많이 응답한 어려

움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 부족', '학업과 양육 병행이 체력적으로 힘들', '학업 시간 동안 아이 돌봄 사람 없음'으로 나타났다. 만 20~24세 미혼모의 경우는 공부할 시간 부족과 아이 돌봄 사람 부재

[표 3] 학업을 지속하게 된 가장 큰 도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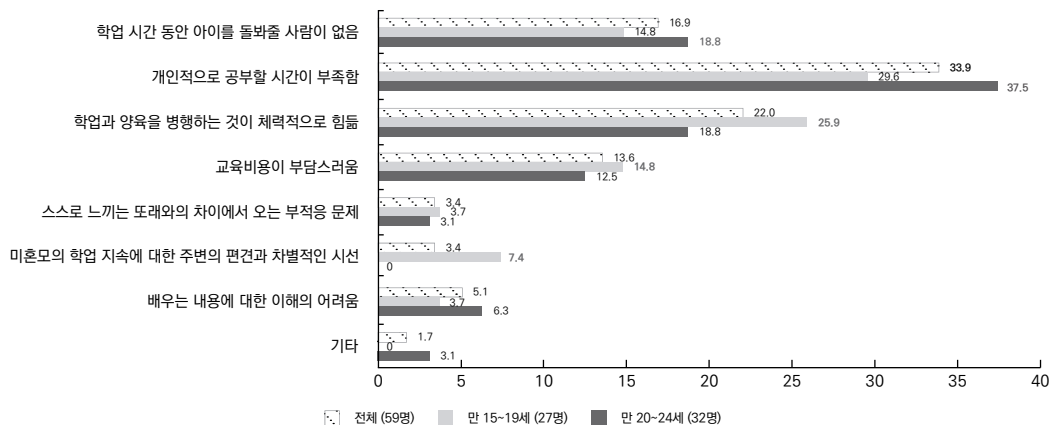
구분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강한 본인 의지	가족, 친지 및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	대안학교 이용 가능	원래 다니던 학교(선생님)에서 계속 다니도록 지지하고 배려해 주었기 때문	기타	사례 수
전체	59.3	16.9	8.5	1.7	13.6	(59)
만 15~19세	70.4	18.5	11.1	0.0	0.0	(27)
만 20~24세	50.0	15.6	6.3	3.1	25.0	(32)

주: 기타는 '취업 및 이직 의지', '아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 현재 학업 지속의 가장 큰 어려움(1순위, n=59)

(단위: %)



주: 기타는 '교통비 부담', '어려움 없음'.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에 대해 10대 미혼모보다 어려움을 더 느끼는 반면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학업과 양육 병행에 대한 체력 부족,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차별적 시선 등 20대 미혼모의 어려움과 비교되는 부분이 드러났다.

청소년 미혼모는 대부분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모 248명은 평일 기준 하루 약 12.88시간을 육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절반 이상의 시간을 양육에 사용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10대 미혼모(48명)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3.95시간, 20대 미혼모(200명)는 12.63시간이었다. 학업을 병행하기에는 시간과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다수의 미혼모가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10대의 경우는 20대보다 현재 최종 학력 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학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력을 알아보면 전문대 이상 졸업에 대한 응답이 약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현재 최종 학력과 연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0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을 자립을 위한 최소 학력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35% 정도로 나타나는 등 20대의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례 수
전체	7.5	26.6	43.7	22.2	(252)
만 15~19세	4.2	18.8	50.0	27.1	(48)
만 20~24세	8.3	28.4	42.2	21.1	(204)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5]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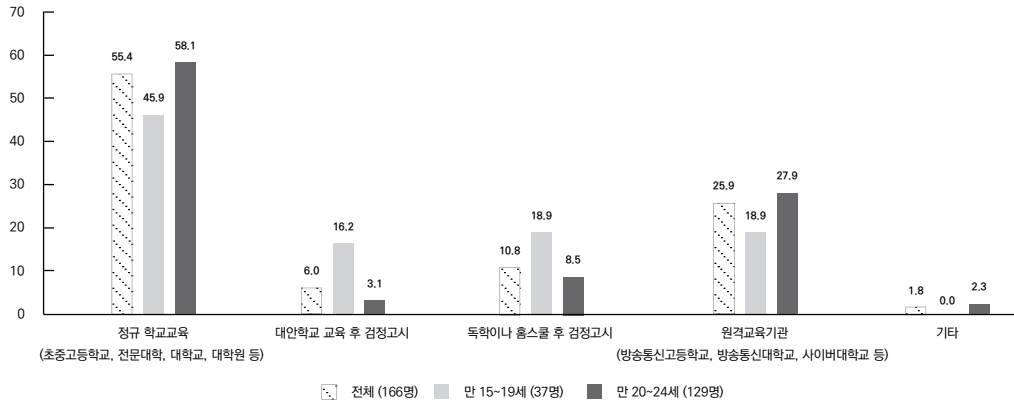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사례 수
전체	20.5	46.4	33.1	(166)
만 15~19세	35.1	35.1	29.7	(37)
만 20~24세	16.3	49.6	34.1	(129)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2] 학업을 더 한다면 받고 싶은 교육 유형(n=166)

(단위: %)



주: 기타는 '기술 자격증 교육', '유학'.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미혼모가 선호하는 교육 유형은 정규 학교교육으로 나타났는데, 만 20~24세 청소년 미혼모는 과반, 10대 미혼모는 절반 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그다음 선호 정도가 높은 교육 유형은 방송통신고등학교·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원격교육기관으로 나타났는데, 이 교육 유형에 대해서는 만 20~24세 미혼모가 10대 미혼모보다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10대 미혼모가 20대 미혼모보다 선호 비율이 높은 것은 대안학교 교육, 또는 독학이나 홈스쿨 후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방식 등 청소년 미혼모의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소년 미혼모의 직업훈련

경제활동에서는 학업만큼 자신이 가진 기술 또한 중요하다. 청소년 미혼모 중에는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업을 마친 단계나 경제활동을 위해 기술을 습득해야 할 때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자립 준비 단계로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경험을 직업훈련 참여 여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어려움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청소년 미혼모에게 출산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4분의 1 정도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는 약 10%만이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대는 학업에 참여 중인 비율이 높고 20대보다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시급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청소년 미혼모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은 ‘훈련 동안 생활비를 벌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응답이 37.5%로 나타났다. 이어서 ‘훈련 과정 동안 아이를 봐줄 곳이 없는 것

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분의 1이 선택하였다.

청소년 미혼모 중에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비율보다 없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자녀를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다’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취업할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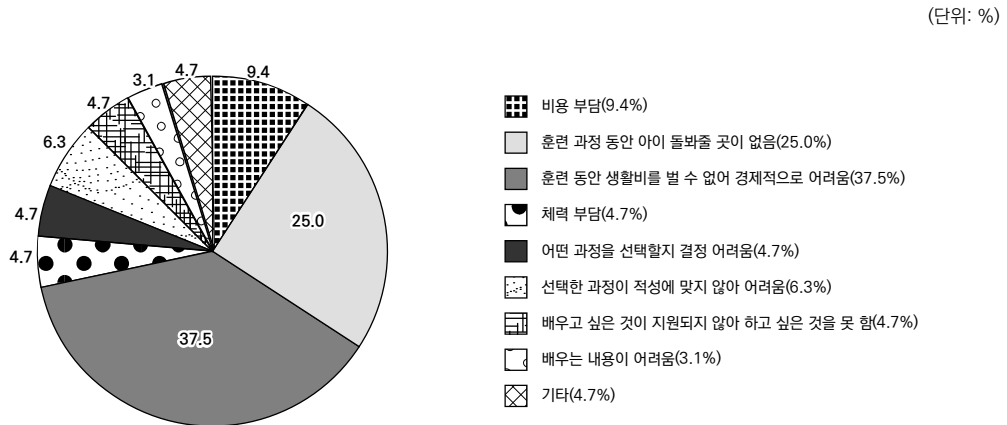
[표 6] 임신·출산 이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사례 수
전체	25.4	74.6	(252)
만 15~19세	10.4	89.6	(48)
만 20~24세	28.9	71.1	(204)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 직업훈련 받을 때 가장 큰 어려움(1순위, n=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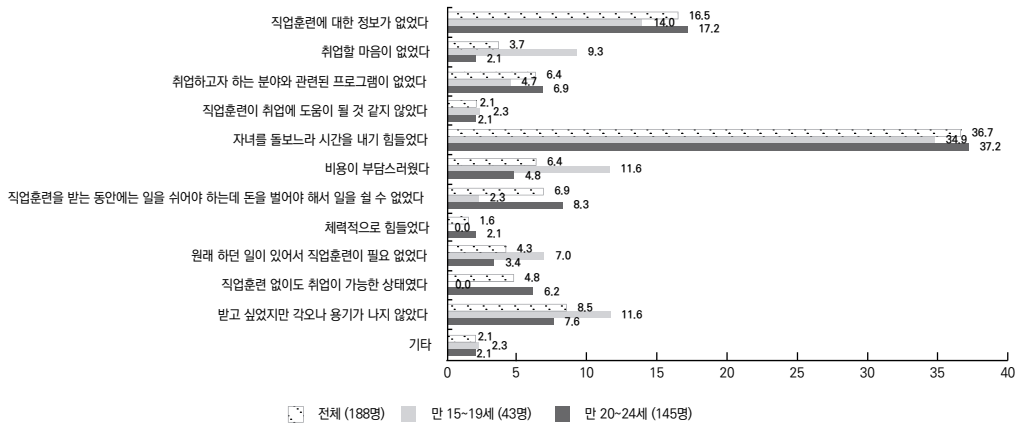


주: 기타는 ‘아이에게 소홀해짐’, ‘교육 내용 부실’, ‘전 과정을 마치고 이수하기 힘들’, ‘시간이 너무 길음’, ‘실 시간이 없음’.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 직업훈련 받지 않은 이유(n=188)

(단위: %)



주: 기타는 '다른 수업으로 배울 수 있어서', '학업 중이어서'.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없다'거나 '비용 부담', '받고 싶었지만 각오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등의 응답이 20대보다 높았다. 20대 미혼모의 경우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일을 쉬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10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4 청소년 미혼모의 경제활동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활동일 텐데,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경제활동을 안 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10대의 경우는 90%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기] 경제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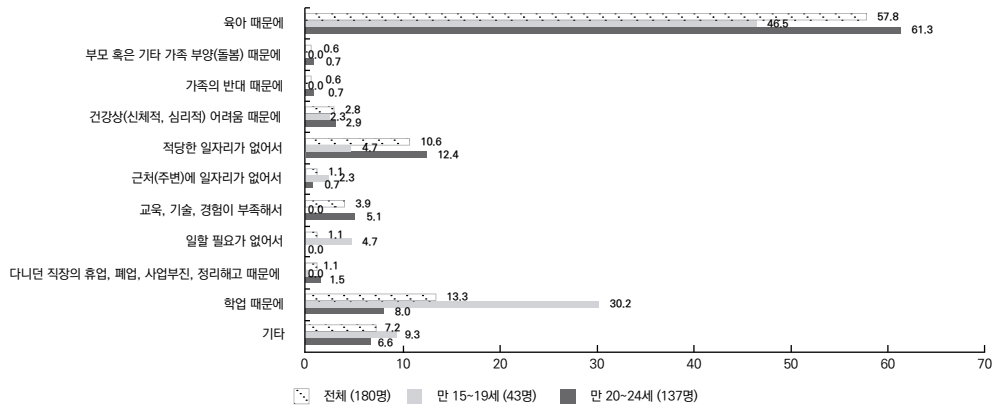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경제활동 안 함	경제활동 함	사례 수
전체	71.4	28.6	(252)
만 15~19세	89.6	10.4	(48)
만 20~24세	67.2	32.8	(204)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5] 현재 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1순위, n=18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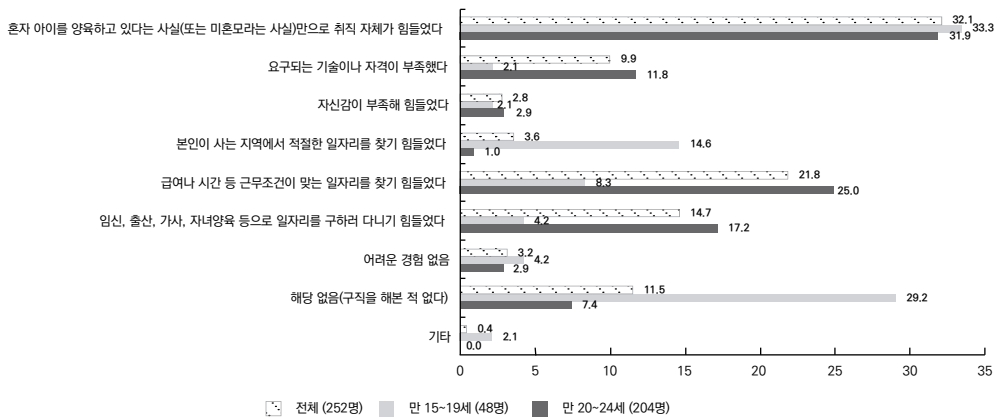


주: 기타는 '자립-취업 준비 중', '수입 발생 시 지원이 사라져서', '직업-기술 훈련 중', '시설에 거주해서', '아이의 건강 및 장애 때문에',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6] 일자리 구하면서 어려웠던 점(1순위)

(단위: %)



주: 기타는 '체력적으로 힘들', '건강상 문제로 힘들'.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육아 때문’으로 나타났다. 만 20~24세 미혼모의 경우는 이 이유가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높은 이유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육아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했으나, 연령 시기의 특성상 ‘학업 때문’이라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면 시기의 특성상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아직 구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 취직 자체가 힘들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0대 미혼모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만 20~24세 미혼모의 경우는 ‘급여나 시간 등 근무조건이 맞는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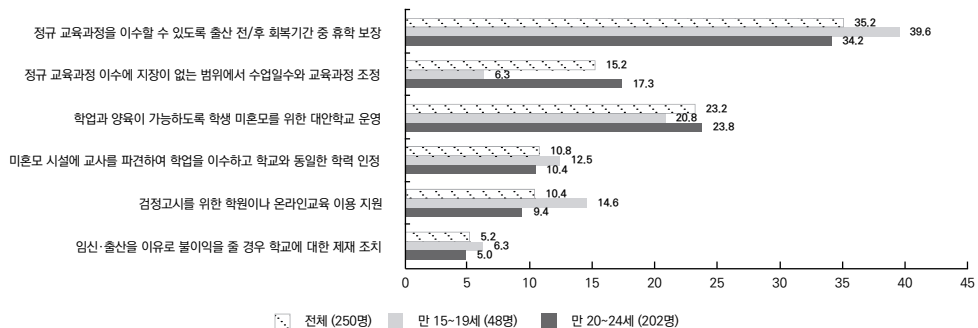
를 찾기 힘들었다’는 것과 ‘임신·출산·가사·자녀양육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다니기가 힘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청소년 미혼모의 정책적 욕구

청소년 미혼모는 연령 특성상 학업 중 임신 및 출산 과정을 경험한다. 이때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출산 전과 출산 후 회복 기간에 휴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앞서 학업을 이어 간다면 가장 선호하는 학업 유형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 미혼모는 정규 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지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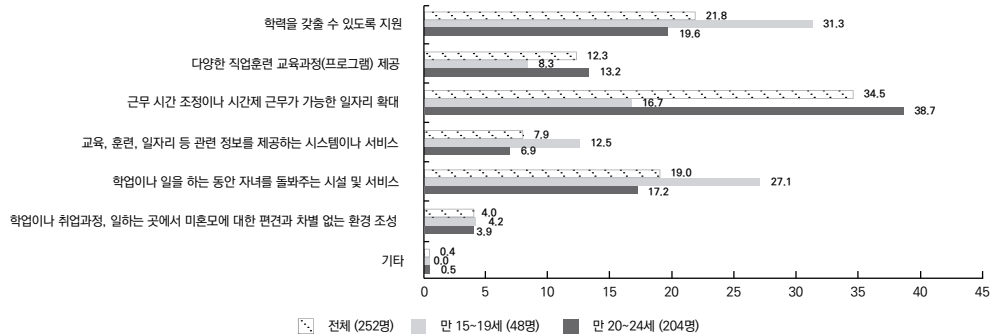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8] 청소년 미혼모가 생각하는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주: 기타는 '정서적 지원'.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청소년 미혼모는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면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학업이나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 주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다. 만 20~24세 미혼모의 경우는 '근무 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확대'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청소년 미혼모라도 10대와 20대는 학력이나 학업과의 시기적 연동성, 자녀의 연령 상승 등으로 인해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욕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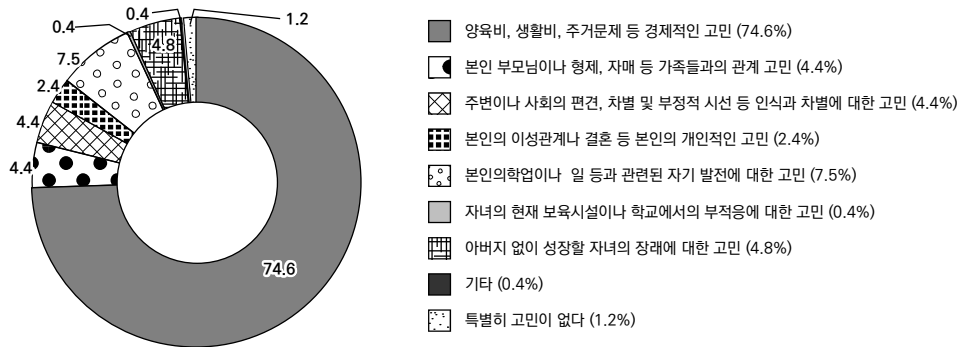
자립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 미혼모가 요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을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양육비, 생활비, 주거문제 등 경제적인 고민'(74.6%)이었다. '본인의 학업이나 일 등

과 관련된 자기 발전'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7.5% 수준에 그쳤다. 자립을 위해 학력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원하는 대로 학업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가진 고민에 대한 응답 결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미혼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적 지원에 대해 청소년 미혼모는 '아이와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보조금 지원'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만 20~24세 미혼모의 경우가 10대 미혼모보다 이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다.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임신 기간 동안의 생활을 위한 지원'과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20대 미혼모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청소년 미혼모의 요즘 가장 큰 고민(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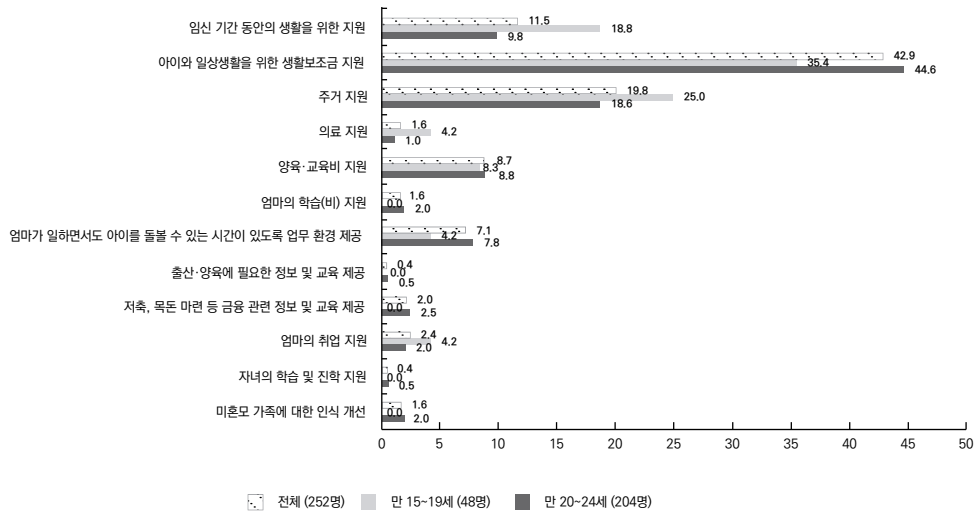


주: 기타는 '아이 양육 전반', '과거 트라우마', '자립'.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0] 미혼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적 지원(1순위)

(단위: %)



자료: 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6 나가며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참여와 자립 준비 및 경제 활동 실태, 그리고 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실태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청소년 미혼모 중 10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퇴를 한 경우가 가장 많다. 우선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자립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학력은 대학 졸업 수준인 경우가 많다. 대학 진학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가 고졸 학력을 갖추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정규 학교교육부터 검정고시와 원격교육 등 청소년 미혼모가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방식을 택해 원하는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업을 이어 나갈 때의 어려움을 제거해 줘야 한다.

학업 지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돌봄 지원이다. 학업을 지속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 학업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학업과 양육 병행으로 인한 체력 소모에 응답이 집중된 결과를 보였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에서는 돌봄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자립 지원에서 청소년 미혼모가 아이 돌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자립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 청소년 미혼모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아직 자립을 이루지 못한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다. 학업과 훈련 동안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직업훈련 받을 때의 어려움에서도 훈련 동안 생활비를 벌 수 없는 것이 지적되었고, 가장 큰 고민이 경제적 고민이며 미혼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적 지원 또한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드러나는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자립을 위해 학력과 돌봄 지원 등 필요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결국 경제적인 고민이었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단기적인 계획 밖에 세울 수 없어서 학업이나 자기 발전 및 성장에 대한 시간 할애나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미혼모 가족이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자신의 성인기 이행과 양육하는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일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을 통해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미혼모 가족은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는 검정고시 등을 위해 연 154만 원 이내에서 학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은 검정고시 지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또는 학업 기간 중 자녀 돌봄 지원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한부모가족지원법), 검정고시나 교육비 지원은 선택이더라도 이들 지원과 돌봄 지원은 중복 선택이 가능해야 청소년 미혼모가 직면한 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더해 청소년 미혼모가 기존의 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0대 청소년 미혼모 지원에서 가정방문 서비스 도입을 논의한 허민숙(2021)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한 지지 체계와 정보 공유 체계의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을 마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지원이 대상자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해야 한다.

이 글은 미혼모 대상 조사 자료에서 청소년 미혼모 연령에 해당하는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청소년 미혼모 조사의 대상 확보 및 조사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현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실태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미혼모 집단은 모수를 정확히 몰

라서 표집틀을 활용한 표본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 글에서 활용된 청소년 미혼모 표본 또한 대표성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향후 발전된 조사 자료를 확보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변수정, 김유경, 최인선, 김지연, 최수정, 김희주.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2. 6. 28.).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d80cf14bfd9e41e196ddd3b53b48df88.pdf&rs=/rsfiles/202304/에서> 2023. 1. 22. 인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가족·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에서 2023. 4. 25. 인출.
-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 개정.
- 허민숙. (2021).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94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KOSIS. (각 연도).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 간격)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에서 2023. 2. 2. 인출.

Unwed Adolescent Mothers' Academic Engagement,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and Policy Needs

Byoun, Soo-J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examines unwed adolescent mothers' academic participation,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and economic participation and identifies their policy needs. For this, I used data on a total of 252 unwed adolescent mothers aged 15 to 24. Unwed adolescent mothers continuing their studies accounted for about one-fourth of the survey subjects. The majority of those teenagers were attending school or preparing for a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exam. Most of the subjects reported difficulties in continuing their education due to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but they also thought that in order for them to become self-reliant, they needed to attain educational levels higher than their current educational level.

Most of the subjects cited their childcare responsibilities as the main reason why they could not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or vocational training. Although they thought that education was important for self-reliance and desired a job where they could work while raising children, the reality was that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kept them from continuing their education or participating in vocational training. In order for unwed adolescent mothers to continue their education, not only education support but also other types of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cluding support in childcare and financial assistance, so that they can juggle their roles as students and mothers.